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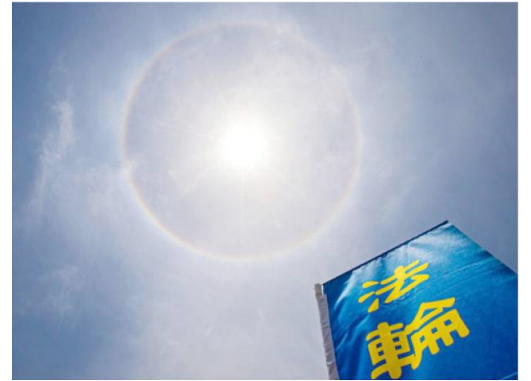
장백산천지

2021년 5월 10일 제 406기 월요일

2021년 5월 9일 까지 해외 대기원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3억 7701만 명

5200 명이 대만에 모여 인각으로 대법의 날 경축 하늘에서 무지개 빛깔의 기이한 햇무리가 나타난다



▲ 2021년 5월 1일, 5200여 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은 대만 대북 중정기념당 앞 자유 광장에서 인각으로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경축할 때 하늘에는 일곱 빛깔의 무지개 햇무리가 아름답게 빛났다.

[밍후이왕] 5월 13일은 ‘세계 파룬따파의 날’ 이자 또 파룬궁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대사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신 날이다. 5월 1일 오전, 대만의 5200여 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은 중정기념당 앞 자유 광장에서 “사존님의 생신을 축하하고 대법홍전 29주년을 기념하는 (賀師尊華誕暨法輪大法洪傳29週年)” 대폭 도형을 인각하여 리홍쯔(李洪志) 대사님의 생신과 파룬따파가 세계에 널리 전해진 것을 경축했다. 인각당일, 하늘에서는 태양 외곽에 무지개빛이 둘러싸인 햇무리의 기이한 광경이 나타났다.

대만 파룬따파학회 장진화(張錦華) 이사장은 “매개 파룬궁수련생은 대법을 수련함으로써 신체와 마음이 승화되고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변화하고

생명의 경지가 자유자재하며 평온한 데에 이른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대만 수련생들은 인각을 통해 사존께서 무한히 수승하고 아름다운 대법을 널리 전해주심에 감사를 표합니다.” 라고 말했다.

대만 파룬따파학회 황춘메이 부이사장은 “국제적으로 전염병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만 파룬궁수련생들이 평소와 같이 대형 인각 활동을 할 수 있단 것은 양안의 정부가 파룬궁을 대하는 태도가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인류에 대한 집단학살적 박해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중국이 세계 각지와 마찬가지로 파룬궁을 자유롭게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말했다.

하늘에서 무지개 빛깔의 기이한 햇무리가 나타난다

대북(台北)은 요 며칠 비

가 내렸지만 5월 1일에는 햇살이 쏟아졌다. 아침 일찍부터 자유 광장에는 수천 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이 모여 질서 정연하게 9시 반에 입장하기 시작했고 우선 장수를 의미하는 복숭아 두 개를 완성한 다음 이어 “사존의 생신을 축하하고 대법홍전 29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잇달아 완성했다. 이때 시원한 한 줄기 산들바람이 불었고 하늘에는 갑자기 태양의 바깥 테두리에 무지개빛이 둘러싸인 햇무리의 기이한 광경이 나타났다. 현장의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다” 라고 외쳤다.

대만 각계인사들이 리대사님께 생신 축하드리다

대만 입법원 부원장 차이지창(蔡基昌)은 파룬궁수련생이 거행한 각종 활동은 “건강외에 배후에 전시된 가치는 대만 민주사회와 전세계 민주 동맹국가에 모두 정면의 에너지가 산생한다.”는 것을 점점 심각히 요해할 수 있 (2면에 계속)

(1 면의 계속) 게 한다고 표시했다. 그는 파룬궁수련생이 ‘진선인(眞善忍)’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그 어떤 잔혹한 탄압을 받던지 모두 한길에서 오늘 날까지 견지하여 전세계 인류에게 정면적인 의미를 주었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파룬궁 창시인의 생신에 즈음해 모든 파룬궁수련생을 축복하며, 그들이 신념을 견지하고 ‘진선인(眞善忍)’의 에너지를 전 세계에 지속해서 확산해주기를 희망합니다.”

화인민주서원(華人民主書院) 이사장 쟡젠위안(曾建元)은 “리훙쯔 선생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수련생에 대해 지도와 리더십으로 과거에 인식해온 그런 기공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체를 단련하는 외에 그는 또 속세에 깊이 들어옴으로써 인간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성대한 인각으로 진상을 전시하고 중공을 폭로하다

파룬궁수련생의 인각 활동은 중국대륙으로부터 시작됐다. 1996 년, 1997 년, 1998 년 에 파룬도형과 ‘진선인(眞善忍)’을 인각하였다. 1999 년 중공이 파룬궁에 대해 피비린 박해를 실시할 때까지이다. 2000 년부터 대만 파룬궁수련생들은 중국대륙 수련생의 인각활동을 계승해 지속적으로 인각활동을 통해 세인에게 진상을 알렸다.

22 년래 줄곧 인각 도형 설계를 담당해온 우칭상(吳淸祥)

씨는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심성을 수양하여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데, 신체가 건강하면 국가의 의료비도 절약할 수 있고 사회에 좋은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가 더욱더 평화로워집니다. 사실, 대만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파룬궁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파룬궁을 탄압하는데, 설마 좋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걱정이 된단 말입니까? 사실 매우 황당무계하고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파룬궁은 인각의 방식으로 파룬따파가 세계에 널리 전해진 성황을 펼쳐 보여 세인에게 진상을 알게 하는데, 중공의 거짓말은 중공을 자멸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표시했다.

열점

홍콩 경찰, 파룬따파 진상부스 파손한 혐의로 8 명 체포

[명후이왕] 근일, 중국공산당(중공)이 고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은 홍콩 파룬따파(法輪大法) 진상 부스를 연속해서 공격하고, 물품을 회손시켰다. 이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초래했다. 여러개 나라의 파룬궁수련생들은 선후 중국영사관에서 항의하고, 이 사건을 겨냥해 홍콩 경찰은 지난 4 월 22 일, 적어도 남성 8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법을 고의로 어기지 말 것을 당부하며, 형사상 손괴죄는 최대 징역 10 년의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경찰이 진상부스를 파괴하는 괴한들을 체포하는 것을 홍콩 파룬궁수련생은 환영한다고 표시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4 월 2 일부터 9 일까지, 일주일 만에 적어도 6 개의 파룬

따파진상 장소가 10 번이 넘게 파괴됐다. 경찰 성명에 따르면, 이 사건은 아직 조사 중이며, 추가적인 체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시민들이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하라고 권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배경과 상관없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 대부분이 마피아 출신이라며, 현재 이러한 공격의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파룬궁 수련생 저우성은 더 많은 사복 경찰들이 보안을 강화하고 부스 훼손을 막기 위해 진상 장소를 순찰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폭력 습격자에게 사소한 이익을 대가로 받고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돕지 말라고 부탁했다. 홍콩은 법이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법륜(轉法輪)’은 이미 40 여종 언어와 문자로 번역됐다. 이는 외국어로 가장 많이 번역된 중문 서적이다.

그녀는 그들이 ‘9 평 공산당’을 읽어보면 중공 정권의 본성을 이해할 것이라며, “역사는 중공이 한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다. 누가 어떤 문제에서 공산당을 믿었다면 곧 어떤문제에서 목숨을 잃게된다.”고 말했다.

17 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손장군 (孙长军) 씨가 또 납치되어 여러나라 수련생들은 항의 활동을 거행하다

[명후이왕] 2021 년 4 월 , '4·25' 만 명 평화청원 22 주년 기념일을 즈음해 전세계 파룬궁 수련생들은 대행진, 집회, 연공과 촛불집회활동을 거행해 '파룬따파 (法輪大法好)'의 아름다움을 전시하고, 중공의 20 여년간 피비린내 나는 탄압의 죄행을 폭로했다. 그중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영국 등지의 집회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은 중공이 (왕청 파룬궁수련생) 손장군 (孙长军) 씨를 또다시 납치한데 대해 항의했다.

2002 년, 당시 겨우 26 세인 손장군 씨는 장춘 텔레비전 진상 삼입방송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법 징역형 17 년을 선고받고 길림감옥에서 각종 박해를 받았다. 2019 년에야 비로소 억울한 옥살이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출옥한지 겨우 1 년이 지난후 금년 4 월 6 일 손장군 씨는 또 연변 왕청현 '610'과 국보대대에 의해 납치됐다. 명후이왕 정보에 따르면 예전에 '610'인원은 손장군 씨에게 전화로 그를 전문적으로 '전향 (파룬궁수련을 포기하도록 핍박)'시킬 의도를 밝힌적이 있다.

해외 각지역의 집회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은 항의 현수막을 들었다. "즉시 무조건적으로 손장군 (孙长军) 을 석방하라!" "세뇌반은 중공의 검은 감옥이다!"

중공은 부단히 파룬궁수련생에게 소위 '제로화 (清零)'행동을 진행해 모든 파룬궁수련생을 강박하여 신앙을 포기 하게하려 한다. 소위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은 대면적으로 납치박해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심신을 박해하는 "검은 감옥" 세뇌반이 또 곳곳에서 나타났



▲ '4.25' 평화청원 22 주년을 기념해 2021 년 4 월 18 일 뉴욕 파룬궁 수련생 천여 명이 대행진을 거행했다. 파룬궁수련생은 손장군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 등 현수막을 들었다.

다.

소위 세뇌반이란 아무런 법률 절차도 없이 사람을 납치하고 감금하는 곳이다. '610'의 관할아래에서 마음대로 무기한으로 파룬궁수련생을 감금하고, 고문구타하고 강제세뇌하고, 정신병 약물구타 등 반인류의 박해 수단을 실시한다.

손장군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세인에게 파룬궁진상을 알렸다

2002 년 3 월 5 일 저녁 8 시경, 장춘에서 18 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은 케이블 TV 삼입방송을 통해 '파룬따파가 전 세계에 널리 전해지다, '분신자살인가 아니면 사기극인가?' 등의 파룬궁 진상 관련 영상을 성공적으로 방영했다. 방영시간은 40 분 ~50 분에 달했고, 방송 자체가 32 개 채널을 이용하는 30 만 가정의 백만 명 시청자들을 커버했다. 장춘 시민들은 처음으로 자기 집에서 나오는 TV 를 통해 파룬따파가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된 진상을 알게 되었으며, 진상영상은 중공이 '천안문 분신자살'을 제작해 파룬궁을 모함하기 위해 날조한 요사한 음모를 폭로시켰다.

'장춘 삼입방송'은 해내외를 진

감했다. 이는 삼입방송 용사들과 장춘 파룬궁수련생들이 거대한 대가로 바뀐 것이다. 그날밤, 중공은 미친듯이 파룬궁수련생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그후 일년이란 대납치중에서 장춘 지역 5000 여 명 파룬궁수련생이 체포됐으며, 적어도 8 명이 고문박해로 사망했다. 35 세 후명개 (侯明凯) 는 체포된 후 단 이틀 만에 '호랑이 의자' 고문을 받을때 악경의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

삼입방송에 직접 참가한 용사 손장군 씨는 불법 17 년 중형을 선고받고, 김학철 씨는 불법 10 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외 또 15 명이 불법적인 판결로 4 년에서 20 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많은 수련생들이 고문에 시달려 사망하거나 정신이상 되었다.

파룬궁수련생 김학철 씨는 2002 년 삼입방송에 참여한 수련생 중 유일하게 살아서 중국을 탈출한 생존자이다. 그는 명후이왕에서 (4면에 계속)

(3면의 계속) 손장군 씨가 납치됐다는 보도를 보고 “괴롭고 분노한다”고 했다. 김학철 씨는 장춘 삼입방송의 대단한 행위는 사람더러 중공은 어떻게 거짓 날조로 민중을 기편했는지를 볼 수 있게했다. 중공의 거짓 날조는 민중들이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원한을 선동했고, 사람에게 ‘진선인(眞善忍)’을 배워주는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적대심하게 해 중국사람더러 ‘진선인(眞善忍)’을 멀리하게 했다. 아주 많은 중국인들은 깊은 함정으로 미끄러져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삼입방송은 어두운 밤 하늘에 나타난 번개처럼 중공의 거짓 날조의 철막을 찢었다. 이는 중공의 정보봉쇄를 넘는 이정표로서 전세계 정의 인사들이 중공의 사악한 거짓 날조를 폭로하게 고무했다.

뉴욕 집회에서 국제사회의 구원을 호소하다

4월 18일, 뉴욕 플러싱 천명 ‘4.25’기념 대행진과 집회에서 원 장춘파룬궁수련생 진경우(陳敬宇) 등 국제사회에서 손장군의 구원을 호소했다.

시드니집회에서 손장군의 구원

을 호소하다

4월 23일과 25일, 파룬궁수련생은 시드니시청과 중국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거행했다. 원 북경사범대학 부교수 리원화(李元華)는 “손장군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는 전시판을 들었다.

그는 당시 자신이 파룬궁수련을 포기하지 않아 중공에 의해 세뇌반에 납치되었는데, 세뇌반은 중공이 정신적 공제와 정신적 박해를 실시하는 장소이고, 세뇌란 중공측에서 대법을 함부로 모독하는 사물을 강제로 주입시키고,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동시에 각 종 악렬한 수단으로 전향을 핍박하며, 전향을 거부한다면 옥살이를 벗어날 수 없게하는 수단이라고 폭로했다. 리원화는 각국정부에서 정의와 양지에 서서 파룬궁수련생을 방조해 중국에서 발생한 인권재난을 제지시켜 손장군과 기타 감금된 파룬궁수련생을 구원할 것을 호소했다.

유럽 영국 버밍엄 시 중심

4월 24일, 영국 버밍엄 시 중심 파룬따파진상부스에서 파룬궁수련생 수산은 “손장군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 등 전

시판을 걸었다.

<국제추구> 조직은 박해 참여자의 증거를 수집한다

박해가담자는 자신이 국가법률을 집행한 것이고, 상급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니 모두 직책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수련생을 박해한 죄는 자신, 가족에게 액운과 보응을 초래할 뿐이다. 옛말에는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고 한다.

밍후이왕 정보통계에 따르면 2020년 10월까지 20년래 장춘 지구만해도 파룬궁박해에 참여해 액운을 받은 자는 적어도 674명이다. 그중 장춘 삼입용사 불법판결에 참여한 법원원장, 청장 등 인원들에게 액운이 따라 판결, 고소, “쌍규(雙規)”, 조사 등을 받고 낙마된 인수가 2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샌프란시스코 수련생 안니는 연변 왕청현 ‘610’ 국보대대상관 인원에게 손장군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 고 경고했다. 그는 말했다. “현재 이미 국제추적 조직은 대심판을 위해 박해 참여자의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만약 계속해서 박해에 가담한다면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중공의 순장품으로 되는 결과 뿐입니다.”

기어서 문을 열어준 이웃이 배웅할 때는 건다

[밍후이왕] 몇 년 전 우리 동네에 눈이 한 차례 내렸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창고 안으로 전기차를 밀어 넣다가 창고 문턱이 너무 높은 데다 가파르고 미끄러워 차와 함께 눈길에 넘어졌고, 이후 아파서 일어설 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 내가 손자를 유치원에 보내는 길에 그녀를 봤는데 딸이 힘겹게 부축하며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현지 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성립병원에 가라고 했다는 사연을 말했다. 모녀가 간신히 불러낸 두 대의 택시는 모두 길이 미끄럽다고 거절했다. 나는 손자를 보내고 돌아온 후

파룬궁 진상 자료를 갖고 이웃집 문을 두드렸다. 한참 기다렸더니 문이 열렸다. 알고 보니 딸이 약타러 가서 아주머니가 두 손으로 의자를 짚고 한발 한발 옮겨서 문을 연 것이다. 나는 그녀를 다시 부축해 앉혔다. 그는 밤새도록 다리가 아파 잠을 못 잤고, 옷도 벗지 못하고 똑바로 누울 수도 없고 다리도 펴 수 없다고 했다.

나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며칠 전 내가 경찰에 납치되고 집을 수색당한 일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 나는 일부 문제를 풀어주고, 파룬따파가 국제적으로

널리 전해진 상황을 말해줬는데 그녀는 하나하나 수긍했다.

떠날때 그녀는 일어나서 나를 문까지 배웅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 걸을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재서야 정말 그녀가 스스로 걸어온 것을 알아차렸다.

파룬따파는 정말 신기하다! 20년 넘는 동안 대법의 신적과 초상함이 나와 가족, 친지들에게 계속 나타났지만, 이번에도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느껴졌다. 세인들이 대법의 진상을 받아들일 때 자비하시고 위대하신 대법 사부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세인의 업력을 없애주시는 것이다.

며칠 지나 그녀가 이미 정상적으로 거리에 나가는 것을 보았다.